

# 朝鮮 漢學書의 중국어음 중성 표기에 반영된 음운변화\*

愼 鏞 權\*\*

<目 次>

I. 서론	III. 중성 표기에 반영된 음운변화
II. 韻尾의 존재 여부	1. 陰聲韻에서의 관련 변화
1. 支紙寘韻의 중성 표기 ‘△’	2. -m과 -n 韻尾의 합류
2. 陽聲韻의 중성 표기 ‘ㄱ’	3. 入聲韻尾의 소실
3. 入聲韻의 중성 표기 ‘ㅇ, ㅁ’	IV. 결론

## I. 서론

조선시대에는 언어 연구의 가장 큰 성과인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창제 이외에 中國音韻學에 기반을 둔 韻書의 편찬, 외국어에 대한 연구인 譯學과 외국어 학습서인 譯學書의 편찬, 어휘집의 편찬 등이 주요한 언어 연구 성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기관인 司譯院에서는 여러 언어 중에서 漢語(중국어)의 교육과 학습을 가장 중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漢學書가 간행되었다.<sup>1)</sup>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는 당시의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1) 朝鮮 漢學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본고는 사역원에서 간행된 한학서와 조선 후기의 일부 중국어 학습서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표기의 기반이 된 《洪武正韻譯訓》(1455), 《四聲通解》(1517) 등 초기 운서에 나타난 표기도 논의 대상으로 한다.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문어를 반영하는 문헌들과는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수정하여 편찬한 경우가 많아서 중국어음 표기와 중국어 원문은 중국어 역사언어학 자료로 가치가 높다.

조선시대의 운서와 한학서에서는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으로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하였는데, 이러한 표기는 정확하고 생생하게 당시의 중국어 발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의 한학서에는 운서에서 제시된 정밀한 중국어음 표기방식과 중국어 학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표기방식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를 통하여 당시의 중국어 음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 표기를 통하여 근대중국어에 나타난 韻尾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의 여러 종성 표기가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중국어의 운미를 나타내는 것인가의 문제이며, 陰聲韻 종성 표기 ‘△’, 陽聲韻 종성 표기 ‘ㄱ’, 入聲韻 종성 표기 ‘ㅇ, ㅁ’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 표기는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운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일부 종성 표기는 당시 이미 소실되어 일종의 음운법주를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기로 쓰인 경우도 있고 당시의 중국어음을 보다 정밀하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도 있어서 표기의 성격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러한 종성 표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의 종성 표기가 근대중국어의 음운변화 양상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 표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기가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명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 표기의 성격을 해명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 자료들에 나타난 종성 표기가 근대 시기 중국어 운미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한다.

## II. 韻尾의 존재 여부

조선시대의 한학서에 나타난 종성 표기가 당시 중국어에 존재했던 운미를 실제로 나타낸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운미는 중국어에서 일종의 음운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운미의 변화는 중국어음운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종성 표기가 해당 중국어 운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인지 검증하여 중국어 음운변화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 1. 支紙寘韻의 종성 표기 ‘△’

조선 한학서에서는 支紙寘韻 齒音字의 종성 표기로 ‘△’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종성 표기는 《洪武正韻譯訓》(1455년, 이하 《譯訓》)에 기록된 현실음인 俗音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최초의 역학서 언해인 《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1515년경, 이하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 支紙寘韻의 韻母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sup>2)</sup> 조선시대의 관련 기록에서 支紙寘韻의 종성 표기 ‘△’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다음의 두 부분에서 나타난다.

- (1) “通放費字音즈, 註云俗音중, 韻內齒音諸字, 口舌不變, 故以△爲終聲然後, 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 若從通放(\*원문은 考)加△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 皆去△聲, 而又恐其直從去△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 加△之字於右<sup>3)</sup>, 庶使學者必從正音, 用△作聲然後, 可合

2) 《翻譯老朴》에는 중국어 원문의 각 한자 밑에 좌우 두 개의 중국어음이 달려 있다. 이후 간행된 《老乞大》와 《朴通事》의 언해서 및 사역원 간행 한학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譯訓》과 이 책의 중국어음 색인인 《四聲通放》(1455년경, 이하 《通放》)의 표기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譯訓》 및 《通放》의 속음 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 이 부분의 기록에서 ‘右’는 ‘左’의 잘못으로 보인다.

於時音矣. 通攷凡例云, 一則一·之間, 今見漢俗於齒音着一諸字例, 皆長於用·爲聲. 故今之反譯, 亦皆用·作字. 然亦要參用一·之間讀之, 庶合時音矣.”(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

(《通攷》에서 ‘賞’의 字音은 ‘즈’인데 註에 俗音은 ‘중’이라 하였다. 韻內 齒音의 여러 글자들은 입과 혀가 변하지 않으므로 ‘△’으로 종성을 삼은 후에 가히 그 묘함을 다하였다. 이제 치음의 여러 글자를 살펴보니 만약 《通攷》에 따라 ‘△’을 더하여 글자를 삼는다면 초학자가 그 음을 발음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따라서 이번의 反譯에서는 ‘△’ 소리를 모두 없앴지만 또한 ‘△’을 없앤 소리를 바로 따른다면 반드시 時音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제 正音을 쓰고 ‘△’을 더한 글자를 왼쪽에 붙여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정음을 좇아 ‘△’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 다음에 時音에 맞도록 하였다.)<sup>4)</sup> 《通攷》 범례에 이르기를 ‘一’는 ‘一’와 ‘·’ 사이로 읽는다 하였다. 지금 중국 속음에서 치음에 ‘一’ 모음을 가진 여러 글자의 예를 보면 모두 ‘·’ 음 쪽으로 길어져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번의 反譯에서도 모두 ‘·’를 써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역시 ‘一’와 ‘·’ 사이임을 참고하여 읽어야만 時音에 맞게 된다.)

- (2) “三韻內齒音諸字, 初呼口舌不變, 而以△爲終聲然後, 可盡其妙. 如賞즈字呼爲중, 知지字呼爲깁, 餘倣此, 牙音唇音則否.”(《四聲通解》 支紙寘韻)

(三韻 내의 치음 글자들은 당초 발음함에 입과 혀가 변하지 않으나, ‘△’으로써 종성을 삼은 후에 가히 그 묘함을 다하였다. 예를 들어 ‘賞즈’ 글자는 ‘중’으로, ‘知 지’ 글자는 ‘깁’으로 발음하는데, 나머지 글자들도 이를 따르지만 牙音과 唇音은 그렇지 않다.)

위 기록은 《翻譯老朴》의 좌측음과 《譯訓》, 《通攷》, 《四聲通解》(1517년, 이하 《通解》)의 俗音에서 ‘支(平)·紙(上)·寘(去)’韻 齒音字의 종성에 표기한 ‘△’과 해당 운모의 발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翻譯老

4) ‘反譯’이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학습상 편의를 위하여 國俗撰字之法에 의거하여 중국어음 즉 우측음을 표기한 것이다.

朴》을 비롯한 한학서의 좌측음과 《通解》의 俗音, 今俗音에서는 支紙寘韻 齒音字에서 ‘一, 丨’에 ‘△’을 중성에 붙여 운모를 표기하였고, 《翻譯老朴》의 우측음에서는 ‘△’ 없이 ‘·, 丨’로만 표기하였다. 17세기 이후의 한학서에서는 우측음에서 ‘·’ 표기가 ‘一’로 바뀌게 된다. 새로 출현한 舌尖韻母(ㄱ, ㅋ)를 표음한 것으로 보이는 이 표기들은 이처럼 좌우음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翻譯老朴》의 좌측음과 조선 초·중기의 운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표기방식은 字音의 聲·韻·調 각 부분을 일일이 표기한 정밀 표기(운서적 표기방식)이고, 《翻譯老朴》 우측음에서의 표기방식은 중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고유어의 표기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어음을 표기한 國俗撰字之法(역학서적 표기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중성 표기 ‘△(z)’은 혀끝으로 조음되는 支紙寘韻 齒音字 운모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이 글자들의 운모가 ‘一’나 ‘丨’로 표기한 다른 운모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中古音, 近代音, 現代音에서 支紙寘韻 齒音字에는 자음 성격의 운미가 없다.<sup>5)</sup>

따라서 支紙寘韻 齒音字의 중성에 ‘△’을 표기한 것은 운미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북방중국어의 현실음에 출현한 이 부류 글자들의 운모를 정밀하게 표기한 것이다. 이 ‘△’ 중성은 운서에 제시된 표기에서 《譯訓》 정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譯訓》 속음과 《通解》 속음, 금속음에 나타나고 있다. 《翻譯老朴》 등 초기 한학서의 좌측음에 《譯訓》 속음에 기초한 표기가 제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18세기 후반의 한학서에서는 좌측음을 《譯訓》의 정음에 가깝게 회고적으로 수정하였는데, 다른 부분은 《譯訓》의 정음 표기와 일치하면서도 입성운 중성 ‘ㅇ, ㅍ’과 함께 支紙寘韻의 ‘△’ 중성만은 《譯訓》의 속음 표기를 따르고 있어서 18세기 후반 간행 한학서의 좌측음에서도 ‘△’ 중성 표기를 수용하고 있다.

5)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 참고.

## 2. 陽聲韻의 종성 표기 ‘ㄹ’

일부 조선 한학서의 좌측음에서 중고 -m 운미 글자에 양성운의 종성 표기 ‘ㄹ’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음인 우측음에서도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ㄹ’ 종성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규범음의 성격을 가진 좌측음에서는 초기의 간본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간행된 간본들에서 오히려 ‘ㄹ’ 종성 표기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서 각 간본의 자료적 성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다음의 기록은 16세기 초반에 鼻音韻尾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지 언급한 내용이다.

- (3) “諸韻終聲ㄴㅇㄹ之呼初不相混，而直以侵覃鹽合口終聲，漢俗皆呼爲ㄴ，故眞與侵刪與覃先與鹽之音多相混矣。”(《通解》凡例)  
 (여러 운에서 종성 ‘ㄴ·ㅇ·ㄹ’의 발음은 처음에는 서로 섞이지 않았으나 ‘侵·覃·鹽’의 합口 종성에서는 중국의 俗間에서 모두 ㄴ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眞’(ㄴ)과 ‘侵’(ㄹ), ‘刪’(ㄴ)과 ‘覃’(ㄹ), ‘先’(ㄴ)과 ‘鹽’(ㄹ) 등의 음은 대부분 서로 뒤섞였다.)

(3)의 기록은 ‘-m(ㄹ), -n(ㄴ), -ŋ(ㅇ)’으로 이루어져 있던 중고음의 비음운미 체계에서 《通解》 간행 당시 -m 운미와 -n 운미가 합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좌측음 표기의 기반이 된 《譯訓》에서 정음에는 ‘ㄹ’ 종성이 명확히 남아 있고, 속음에는 -m 운미가 -n 운미로 변화한 상황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up>6)</sup>

6) 《譯訓》에서는 정음이 -m(ㄹ) 운미 글자로 구성된 ‘侵·覃·鹽·寢·感·琰·(沁)·勘·豔’韻에서 -n(ㄴ) 운미로 표기한 속음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 또는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을 붙여 -m 운미가 -n 운미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었다. 沁韻에서만 이러한 기록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通解》에서도 ‘侵·寢·沁·覃·感·勘·鹽·琰·豔’韻에서 정음에 -m(ㄹ) 운미를 표기하고 있으나 속음과 금속음에서는 -n(ㄴ) 운미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주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口’ 중성의 출현 상황<sup>7)</sup>

	翻譯老朴	伍諺	老新諺·朴新諺	重老	華諺 <sup>8)</sup>
좌측음	餽, 甚, 怎 <sup>9)</sup>	甚, 怎, 俺 등	다수	다수	甚 <sup>10)</sup>
우측음	甚, 怎	甚, 怎, 俺 등	怎 <sup>11)</sup>	怎	

주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口’ 중성의 출현 상황은 〈표 1〉과 같다. 각 한학서에서 ‘口’ 중성이 출현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

- 7)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칭을 사용한다. 《洪武正韻譯訓》(1455)=《譯訓》, 《四聲通攷》(1455년경)=《通攷》, 《四聲通解》(1517)=《通解》, 《翻譯老乞大》(1515년경)=《翻譯老》, 《翻譯朴通事》(1515년경)=《翻譯朴》, 《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翻譯老朴》, 《老乞大諺解》(1670)=《老諺》, 《朴通事諺解》(1677)=《朴諺》, 《伍倫全備諺解》(1721)=《伍諺》,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序)=《平老》, 《老乞大新釋諺解》(1763)=《老新諺》, 《朴通事新釋諺解》(1765)=《朴新諺》, 《重刊老乞大諺解》(1795년경)=《重老》, 《華音啓蒙諺解》(1883년경)=《華諺》. 이 문헌들 이외에 어휘별 분류사전의 성격을 가진 類解書인 《譯語類解》(1690), 《華語類抄》(1883년경)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좌측음에서 《翻譯老》, 《翻譯朴》, 《老諺》, 《朴諺》, 《譯語類解》, 《伍諺》 등은 《譯訓》의 속음에 가깝고, 《平老》, 《老新諺》, 《朴新諺》, 《重老》 등은 《譯訓》의 정음에 가깝다. 우측음에서 《翻譯老》, 《翻譯朴》은 微母字, 日母字, 일부 글자의 ‘·’ 표기 등을 제외하고 《老諺》, 《朴諺》, 《平老》와 대부분 일치하며, 《譯語類解》, 《伍諺》은 《老諺》, 《朴諺》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老新諺》, 《朴新諺》, 《重老》는 18세기 북방중국어에 나타난 日母字 변화, 尖團不分, 韻母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우측음에서 이전의 문헌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華諺》과 《華語類抄》에서 하나만 제시된 중국어음 표기는 19세기 말의 북방중국어 발음을 반영하고 있다.
- 8) 《華諺》은 漢語本인 《華音啓蒙》(1883)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한학 역관인 李應憲이 편찬한 중국어 회화 학습서로 사역원에서 간행된 한학서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華諺》이 대표적인 19세기 중국어 학습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책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유해서인 《華語類抄》도 사역원에서 간행된 책이 아닌데, 《華諺》과 동일한 중국어음을 반영한다.
- 9) 세 글자의 좌측음 표기는 ‘餽(·함), 甚(·쌌), 怎(·증)’으로 나타난다.
- 10) 《華諺》에서는 ‘甚’이 下卷 19張 前面 8行에서 ‘심’으로 표기된 예가 하나 나타난다.
- 11) ‘怎’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重老》도 마찬가지이다.

다. 《翻老》, 《翻朴》, 《老諺》, 《朴諺》, 《伍諺》 등에서는 좌측음과 우측음의 극소수 글자들에서 ‘ㄱ’ 종성이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이 문헌들의 좌측음은 《譯訓》 및 《通攷》의 속음에 나타난 -m과 -n 운미의 합류를 반영한 것인데, ‘怎麼’와 ‘甚麼’ 두 의문사의 ‘怎’과 ‘甚’ 등에서 ‘ㄱ’ 종성이 나타난다. 《平老》, 《老新諺》, 《朴新諺》, 《重老》 등에서는 편찬자들의 正音觀에 맞추어 좌측음이 《譯訓》 및 《通攷》의 정음에 가깝게 회고적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글자들에서 ‘ㄱ’ 종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좌측음에 나타난 ‘ㄱ’ 종성은 조선 한학서가 간행되기 시작한 16세기 초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m 운미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19세기 말의 《華諺》에 이르게 되면 좌우음 표기는 사라지고 國俗撰字之法에 기반을 둔 한 가지의 표기로만 제시되는데, 이 표기에서는 한 예에서만 ‘ㄱ’ 종성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우측음에서 ‘怎麼’와 ‘甚麼’에 나타나는 ‘ㄱ’ 종성은 당시 -m 운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해명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주요 한학서 간본들에 나타난 ‘怎麼’와 ‘甚麼’의 우측음 등 현실음 표기이다.

〈표 2〉 주요 한학서에 나타난 ‘怎麼’와 ‘甚麼’의 현실음 표기

	翻譯老朴	老諺·朴諺	伍諺	重老	華諺
怎麼	즘:마	즘마	즘마	즘마	즈마
甚麼	·슴:마	슴마	슴마	셔마	시마

〈표 2〉와 같이 두 의문사의 현실음 표기에는 ‘ㄱ’ 종성이 남아 있다. 다만 ‘怎麼’가 18세기 후반의 간본까지 ‘ㄱ’ 종성이 남아 있는 반면, ‘甚麼’는 18세기 후반의 간본부터 사라진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

12) 《伍諺》에 출현한 상용 글자 중에서 ‘甚, 怎’의 좌우음에 ‘ㄱ’ 종성이 나타나는 것 이외에 ‘俺’의 좌우음 표기가 ‘함 암’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존의 연구에서는 이 의문사들만 ‘-m(ㄹ)’ 운미를 보존한 것이 두 번째 글자인 ‘麼’와의 동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많았다.<sup>13)</sup> 다만 18세기 말의 《重老》까지도 ‘怎’은 ‘怎麼’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ㄹ’ 종성을 유지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怎麼’에 있는 ‘ㄹ’ 종성을 동화 작용으로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14)</sup> ‘怎麼’와 ‘甚麼’라는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怎’과 ‘甚’의 ‘ㄹ’ 종성이 동화 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重老》까지 ‘怎麼’의 ‘즈’에 남아 있는 ‘ㄹ’ 종성은 편찬자들이 ‘ㄹ’ 종성이 표기되지 않은 ‘甚麼’와 발음의 차이를 느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환경에서 ‘즈’이 일관되게 유지된 것은 뜻이 달라지거나 文白音を 반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글자의 중국어 주음은 동일하게 표기한다는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중국어음 표기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결국 《重老》 등에 나타난 ‘怎麼(즈마)’의 예를 근거로 일부 글자에서 18세기 후반까지 -m 운미가 잔존해 있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조선 한학서 중에서 중국어음을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기록한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譯訓》의 속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譯訓》의 속음에는 -m 운미의 -n 운미화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문헌의 좌측음에 -m 운미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8세기 후반 간행 한학서의 좌측음에 다수 나타나는 ‘ㄹ’ 종성은 《譯訓》의 정음을 회고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m 운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전 시기의 규범적인 중국어음을 반영하는 좌측음의 상황이 이렇다면, 당시의 현실음인 우측음에 ‘怎麼’와 ‘甚麼’ 두 예에서 ‘ㄹ’ 종성이 나타난 것도 당연히 당시 북방중국어의 비음운미 체계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13) 姜信沆, 「朴通事新釋諺解」內 字音의 音系,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7집, 1978, 95쪽 참고.

14) 金完鎭, 〈重刊老乞大諺解의 研究〉, 《韓國文化》 제13집, 1992, 28-32쪽.

15) 申용권,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중국어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266쪽 참고.

어렵다. 따라서 조선 한학서의 좌우음에 나타난 ‘ㄹ’ 종성은 당시 -m 운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 入聲韻의 종성 표기 ‘ㅇ, ㅁ’

근대중국어에 나타난 운미 변화와 관련하여 입성운미의 변화와 소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 한학서에는 좌측음에서 입성운의 종성 표기가 ‘ㅇ, ㅁ’으로 나타나며, 우측음에서는 종성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학서에 나타난 ‘ㄷ’ 종성이나 ‘ㄹ’ 종성을 당시 실제로 존재한 중국어 운미로 보기 어려운 반면, ‘ㅇ, ㅁ’이 당시에 존재했던 입성운미를 실제로 나타낸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입성운의 종성에 ‘ㅇ, ㅁ’을 표기한 이유에 대하여 《通攷》의 凡例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4) “入聲諸韻終聲，今南音傷於太白，北音流於緩弛。……本韻之作併同析異，而入聲諸韻牙舌唇終聲，皆別而不雜。今以ㄱㄷㅂ爲終聲，然直呼以ㄱㄷㅂ則又似所謂南音，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且今俗音雖不用終聲，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故俗音終聲，於諸韻用喉音全清ㅇ，藥韻用唇輕全清ㅁ以別之。”(《通攷》 凡例)

(입성 여러 운의 종성은 지금 南音은 너무 명백함에 치우치고 北音은 느슨함에 치우친다.……本韻을 지음에도 같은 것을 아우르고 다른 것을 가르니 입성의 여러 운에서도 牙舌唇音의 종성은 모두 구별하여 섞지 않았다. 이제 ‘ㄱ·ㄷ·ㅂ’을 종성으로 삼음에 있어 곧바로 ‘ㄱ·ㄷ·ㅂ’을 발음하면 소위 南音에 가깝게 되니 다만 미미하게 소리를 내어 급히 마치되 지나치게 명백함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속음에서는 비록 종성을 사용하지 않으나 平·上·去聲에서 소리가 늘어지는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속음의 종성에서는 여러 운에 喉音의 全清인 ‘ㅇ’을 사용하고 藥韻에서는 唇輕音의 全清인 ‘ㅁ’을 사용하여 구별하였다.)

- (4)의 기록은 북방어의 속음에서 ‘-p(ㅂ), -t(ㄷ), -k(ㄱ)’ 운미가 소실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평·상·거성의 음성운과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성운의 종성에 ‘ㅇ’과 ‘빙(藥韻)’을 표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通攷》 속음에 기반을 둔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도 입성운의 종성에 ‘ㅇ, 빙’을 표기하게 된다. 그러나 《通解》의 뒷부분에 붙어서 조선 한학서에 제시된 좌우 중국어음 표기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한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이하 翻譯凡例)의 기록에 보이는 아래의 언급은 입성운의 종성 표기 ‘ㅇ, 빙’이 입성의 운미를 실제로 나타낸 것인가의 문제에 의문을 품게 한다.

- (5) “在左者，卽通攷所制之字，在右者，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通攷字體，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其用雙字爲初聲，及 ㅁ ㅂ 爲終聲者，初學雖資師授，率多疑碍，故今依俗撰字體，而作字如左云。”(翻譯凡例 諺音條)

(원편에 있는 것은 즉 《通攷》에서 만들어 쓴 글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의 漢音으로서 國俗撰字之法에 의거하여 만든 글자이다. 《通攷》의 글자체는 國俗撰字之法에 의거한 글자와 많이 다르니 雙字를 사용하여 초성을 삼고 ‘ㅁ, ㅂ’을 종성에 쓴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이 훌륭한 스승에게 배울지라도 많은 의문과 막힘이 따른다. 그러므로 이제 俗間에서 만든 글자체에 의거하여 글자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5)의 기록에서는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고유어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좌측음의 全濁音 표기(各自並書)와 ‘ㅁ, ㅂ’ 종성 등을 우측음에서 國俗撰字之法으로 표기했다고 하였다. 즉 ‘빙’과 ‘ㅇ’ 종성 표기는 입성운미 변화의 문제뿐 아니라 표기방식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종성 표기 ‘ㅇ, 빙’이 나타내는 입성운미가 당시의 언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중요한 언어 요소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기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기방식의 차원에서만 해명하기도 어렵다. 《翻譯老朴》의 우측음에서는 입성운의 종성 표기 ‘ㅇ, 빙’을 표기하지 않고 다음

의 기록과 같이 旁點으로 입성을 표시하고 있다.

- (6) “漢音入聲有二音，通放則皆一點，而反譯則其聲直而高，呼如去聲者一點，先低後厲而促急，少似平聲濁音之呼者二點。”(翻譯凡例 旁點條)  
 (漢音의 입성에는 두 종류의 음이 있는데, 《通放》에서는 모두 1점이 다. 그러나 反譯에서는 그 성조가 곧고 높아서 去聲과 같이 발음되는 것은 1점이고,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거세고 促急하여 平聲 濁音의 발음과 다소 비슷한 것은 2점이다.)

(4), (5), (6)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입성운의 종성 표기인 ‘ㄱ, ㅍ’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는 표기방식과 함께 당시의 음운 현실 및 음운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III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III. 종성 표기에 반영된 음운변화

본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중국어음 종성 표기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 표기가 중국어의 음운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 운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음성운, 양성운, 입성운에서 관련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 1. 陰聲韻에서의 관련 변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음성운에서 종성이 표기되지 않은 개음절 이외에 좌측음에서는 ‘ㄹ(-w), △(-z)’, 우측음에서는 ‘ㄱ(-o), ㄷ(-u)’ 등이 종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모음운미 ‘ㅣ(-i)’는 종성으로 표기되어 있다.<sup>16)</sup> 주요

16) 운미 ‘ㅣ(-i)’는 한학서의 중국어음 표기 체계에서 종성으로 표기하기는 어렵다. 운미 표기 ‘ㅣ’는 한학서에 제시된 운모 표기 중 ‘ㄹ, ㄴ, (ㄹ), ㄷ, ㄱ, ㅍ’

한학서에서 좌측음에 나타난 중성 표기 ‘ㄹ(-w), △(-z)’에 대응하는 우측음의 표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표 3〉 주요 한학서에 나타난 좌측음의 ‘ㄹ(-w)’ 중성 표기

	翻譯老朴	老諺·朴諺	伍諺	重老	華諺
좌측음	-w	-w	-w	-w	-o/-u
우측음	-o/-u	-o/-u	-o/-u	-o/-u	

〈표 4〉 주요 한학서에 나타난 좌측음의 ‘△(-z)’ 중성 표기

	翻譯老朴	老諺·朴諺	伍諺	重老	華諺
좌측음	-iz/-iz	-iz/-iz	-iz/-iz	-iz/-iz	-i/-i
우측음	-△/-i	-i/-i	-i/-i	-i/-i	

본 절에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은 좌우음의 표기 양상에 근거하여 음성운의 두 중성 표기 ‘ㄹ, △’과 관련된 음운변화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장에서 제시한 인용문 (5)의 翻譯凡例 諺音條에서는 ‘ㄹ, ㄹ’을 중성에 쓴 것이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측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방식에 의거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이외에 ㄹ ㄹ爲終聲條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7) “蒙古韻內, 蕭爻尤等, 平上去三聲, 各韻及藥韻, 皆用ㄹ爲終聲, 故通攷亦從蒙韻於蕭爻尤等, 平上去三聲, 各韻以ㄹ爲終聲, 而唯藥韻, 則以ㄹ爲

등에서 나타난다. 북방중국어에서는 중고 시기에서 근대 시기를 거치며 운미 ‘-i’가 소실되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운미 ‘|(-i)’가 중성 표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다.

17) 허웅,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985, 390쪽에 근거하여 본 장에서는 중국어음을 표기한 중세한국어 훈민정음 표기의 추정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단모음 표기는 ㅏ[a], ㅑ[ɛ], ㅓ[o], ㅕ[u], ㅗ[i], ㅛ[i], ㅜ[ɔ]. 운미 표기는 ㅜ[-i], ㅗ[-w], ㅛ[-n], ㅜ[-ŋ], ㅛ[-m], ㅜ[-ʔ], ㅗ[-w], △[-z].

終聲.”(翻譯凡例 ㅁ ㅂ 爲終聲條)

(《蒙古韻》 안에서 ‘蕭·爻·尤’韻 등 평·상·거 3성의 각 운과 藥韻은 모두 ‘ㅁ’을 써서 종성을 삼으므로 《通攷》도 역시 《蒙古韻》을 따라 ‘蕭·爻·尤’韻 등 평·상·거 3성의 각 운에서 ‘ㅁ’을 종성으로 삼았으나, 오직 藥韻만은 ‘ㅂ’으로 종성을 삼았다.)

이 기록과 같이 《蒙古韻》에서는 ‘蕭·爻·尤’韻과 藥韻에서 모두 ‘ㅁ’ (ㅂ)로 종성을 삼았고 《通攷》에서도 이를 따라 ‘蕭·爻·尤’韻에서는 ‘ㅁ’으로 종성을 삼았다. 通攷所制之字인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도 《通攷》 속음의 표기방식에 따라 ‘ㅁ’을 종성에 표기하였고, 國俗撰字之法인 우측음에서는 중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ㄱ, ㅌ’로 종성을 삼았다. 字音에서 음절 말에 나타나는 모음 성격의 운미라면 ‘ㄱ(-o), ㅌ(-u)’보다는 ‘ㅁ(-w)’을 종성에 표기하는 것이 그 특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ㅁ’ 종성은 정밀 표기(narrow transcription)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ㄱ, ㅌ’를 종성에 표기한 것은 고유어의 일반적인 음절구조를 활용하는 國俗撰字之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ㅁ’을 종성에 표기하는 것이 고유어 표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ㄱ, ㅌ’를 종성에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국어 학습자가 이해하기에는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좌측음의 종성 ‘ㅁ(-w)’은 음성운의 운미이지만, 우측음에서 종성에 표기된 ‘ㄱ(-o), ㅌ(-u)’와 대응하는 것은 표기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운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다만 ‘ㅁ’ 종성이 붙은 운모의 표기가 《翻譯老朴》 등의 좌측음에서는 《譯訓》의 속음에 따라 ‘-aw, -iw, -iw, -iaw’로 나타나고, 《老新諺》과 《朴新諺》 등의 좌측음에서는 《譯訓》 정음에 따라 ‘-iaw’ 대신 ‘-iaw’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간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sup>18)</sup> 종성 ‘ㅁ’이 출현하는 《譯訓》

18) 예를 들어 ‘了’는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 ‘랴’로 제시된 반면, 《老新諺》의 좌측음에서는 ‘렐’로 제시되어 있다.

‘蕭(平)韻의 첫 정음 표기 ‘설 蕭’ 아래에 “韻內諸字中聲, 若直讀以ㄷ, 則不合時音, 特以口不變, 故讀如ㄷ一之間, 俗音샬,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고 ‘篠(上)·嘯(去)韻에도 같은 기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蕭韻 등에서 보이는 정음(설)과 속음(샬)의 표기 차이는 核母의 低母音化(/ɛ/ → /a/)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支紙寘韻 齒音字의 중성 표기인 ‘△’은 중국어의 운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서 운미의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해당 운모의 변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즉 설첨모음(ɿ, ʮ)은 앞에 위치한 精系와 知照系 聲母의 영향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조선 한학서에서는 중성 ‘—(i), | (i)’ 다음에 중성 ‘△’을 붙여 앞의 중성이 설첨모음화한 상태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 중성은 근대 시기 북방중국어에서 설첨모음(ɿ, ʮ)이 발생한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운모의 모음 표기가 ‘—(i)’ 또는 ‘| (i)’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권설음화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설첨모음(ɿ, ʮ)의 발생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설첨모음으로 이루어진 설첨운모는 宋代 무렵 변화가 발생하여 점차 형성되었다. 관련 자료에 의거하면 12세기인 南宋初에 精系 글자 뒤에서 ‘i’가 먼저 출현하였고, 13세기인 元初에 일부 知照系 글자 즉 주로 莊組 글자에서 ‘ɿ’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i’ 운모의 변화 과정이 먼저 완성되고 15세기인 明代에 이르게 되면 ‘ɿ’ 운모 글자의 범위가 현대어에 가깝게 확대되었다.<sup>20)</sup> 아래의 <표 5>에는 15세기의 중국북방음을 반영하는 《翻譯老朴》 좌측음에 나타난 支紙寘韻 齒音字의 표기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支紙寘韻에서 齒頭音은 중성 표기가 ‘—(i)’로만 되어 있어서 ‘i’의 상태로 변화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며, 正齒音에서 莊組는 중성 표기가 ‘—’이지만 知組 글자와 일부 章組 글자는 여전히 중성 표기 ‘|’를 가지고 있어서

19) 金武林, 《洪武正韻譯訓 研究》, 도서출판 월인, 1999, 194쪽 참고.

20)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灣學生書局, 1994, 237쪽 참고. 王力, 〈漢語語音史上的條件音變〉, 《語言研究》 第1期, 1983, 2쪽에서도 설첨모음 ‘i’는 대략 宋代에 이미 발생하였고, 元代에 이르러 권설모음 ‘ɿ’도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i’ 운모의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i’ 운모의 변화가 먼저 완성되고 이후 ‘i’ 운모의 변화가 점차 진행되는 중국 자료와 유사한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翻譯老朴》의 우측음에서는 중성 표기 ‘△’이 사라지고 ‘·(λ), | (i)’로만 운모를 표기하는데, 이러한 표기 상황은 ‘i’ 운모로의 변화 과정이 더 진전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 5〉 《翻譯老朴》의 좌측음에 나타난 支紙寘韻 齒音字<sup>21)</sup>

	-iz	-iz
ˆ (치두음)	紫, 資, 子, 仔	해당글자 없음
ˆ (치두음)	此, 次	해당글자 없음
ˆ (치두음)	廡, 私, 死, 四, 肆, 司, 絲, 思, 伺, 寺	해당글자 없음
ˆ (치두음)	瓷, 自, 孳, 慈, 鷄, 字	해당글자 없음
ˆ (치두음)	辭, 詞, 似, 巳	해당글자 없음
ˆ (정치음)	支, 枝, 紙, 只, 脂, 旨, 指, 至, 之, 芝	知, 致, 置, 誌
ˆ (정치음)	翅, (廁), 齒	해당글자 없음
ˆ (정치음)	施, 師, 獅, (屍), 使, 使, 詩, 試	世
ˆ (정치음)	해당글자 없음	池, 遲, 治 <sub>1</sub> , 治 <sub>2</sub> , 值
ˆ (정치음)	匙, 是, 柿, 事, 時, 市, 侍	誓
△(반치음)	兒, 二, 而, 耳, 餌	해당글자 없음

권설음화는 정치음과 결합하는 모음이 ‘i’로 변화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 (i) → -(i)’의 중성 표기 변화로 나타난다. 〈표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莊組 글자는 중성 표기가 ‘-(i)’로 되어 있어 권설음화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고, 知組 글자와 일부 章組 글자는 중성 표기가 ‘-(i)’와 ‘| (i)’로 모두 나타나서 권설음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최초의 한학서 언해인 《翻譯老朴》부터 18세기 후반의 한학서에 이르기까지 〈표 5〉에서 ‘| (i)’와 결합한 정치음 글자들은

21) 본 표에 있는 글자 중 밑줄을 친 것은 莊組 글자이다.

우측음에서 ‘l(i)’가 그대로 유지되어 권설음화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어변화가 아닌 편찬자나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2)</sup>

## 2. -m과 -n 韻尾의 합류

조선 한학서에서 중국어 양성운의 중성에는 ‘ㄹ(-m), ㄴ(-n), ㅇ(-ŋ)’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m’과 ‘-n’ 운미의 합류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음인 우측음에서 비음운미는 ‘ㄴ(-n), ㅇ(-ŋ)’으로 체계가 간략해진 상태이다. 다만 -m 운미는 음운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본 절에서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m과 -n 운미의 합류 양상이 북방중국어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 시기와 양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북방중국어에서 -m과 -n 운미의 합류 현상이 唇音 글자부터 점차 진행되다가 대체적으로 15~16세기에는 종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sup>23)</sup> 훈민정음을 사용한 중국어음 표기에서는 -m 운미가

22) 신용권, 같은 책, 2019, 232-234쪽에서는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간본에서 운모 표기의 변화를 통해 권설음화의 진전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원인을 편찬자의 태도나 표기와 관련된 측면에서 해명하고 있다.

23)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第31期, 1946, 39쪽에서는 -m 운미의 唇音字가 이화 작용에 의하여 -n 운미로 변화하는 현상이 《中原音韻》(1324)에 나타나서 이후 -m 운미의 소실이 점차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80, 135-136쪽에서는 -m 운미가 -n 운미로 변화하는 현상이 《中原音韻》의 唇音字에서 나타나고 《西儒耳目資》(1626)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북방어에서는 16세기 이전에 -m 운미가 소실된 것으로 보았다. 安奇燮, 〈從朝漢對音考察-m韻尾的轉化〉, 《語言研究》 第2期, 1995, 89쪽에서는 《譯訓》, 《通解》, 《翻譯老朴》 등에서 -n 운미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中原音韻》에서 일부 -m 운미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書文音義便考私編》(1587)과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1606) 등 16~17세기의 等韻學 저작에서 전면적으로 -n 운미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楊耐思, 《近代漢語音論(增補本)》, 商務印書館, 2012, 60-61쪽에서는 근대음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근거하여

-n 운미와 전면적으로 합류하는 상황이 《譯訓》(1455)의 속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譯訓》 정음에는 ‘ㄹ’ 종성 표기가 있고, 《通解》에서도 정음에 ‘ㄹ’ 종성 표기가 남아 있으나 속음과 금속음에서 -m(ㄹ)과 -n(ㄴ) 운미가 합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譯訓》의 속음이 -m과 -n 운미의 합류를 반영한 것은 이 변화가 北方官話에서 15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양상은 16세기 초반의 《翻譯老朴》에서 수용되었는데, 좌측음에서 ‘餡(·햐), 甚(:쌈), 怎(:즘)’ 세 글자, 우측음에서 ‘甚(·슴), 怎(·즘)’ 두 글자에서만 ‘ㄹ’ 종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실상 -m과 -n 운미 합류의 완성 단계를 보여준다. 최초로 중국어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譯訓》과 최초의 한학서 언해인 《翻譯老朴》부터 -m과 -n 운미의 전면적인 합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자료들은 비교적 생생하게 북방관화의 비음운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m 운미가 -n 운미와 합류하는 변화의 초·중반 진행 과정이 조선 한학서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둘째, 《翻譯老朴》부터 좌우음 모두 -m 운미가 사라진 상태를 반영하지만, -m 운미가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도 있어서 -m과 -n 운미의 합류 과정이 당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의 기록은 -m과 -n 운미의 합류 과정에서 -m 운미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8) “今俗皆呼爲ㄴ, 而閒有用ㄹ呼之者亦多, 故不著俗音如通放也.” (《通解》  
侵寢沁韻)

(지금 속음에서는 모두 ㄴ으로 발음하는데, ㄹ으로 발음하는 것 또한 많으므로 《通放》와 같은 속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通語나 官話에서는 -m 운미의 부분적인 변화가 14세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16세기 초엽 이전에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방언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훨씬 더 이르다고 하였다.

《譯訓》에서 중고 -m(口) 운미로 구성된 9韻 중에서 沁韻에만 ‘ㄴ’ 종성의 속음과 함께 ‘韻中諸字終聲同’이나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없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8)의 기록은 《通解》의 ‘侵·寢·沁韻에 주석으로 달린 것인데, 《譯訓》에서 沁韻에만 대표 글자에 ‘口’ 종성을 ‘ㄴ’으로 표기한 속음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없다는 사실과 맞물려 沁韻 등 특정한 부류의 글자들에서 -m 운미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甚’의 경우에는 《通解》 금속음에 ‘甚麼’에서 ‘쏟’으로 발음한다는 주석이 있으며, 〈표 1〉에서와 같이 조선 한학서에는 일부 글자의 종성 표기가 ‘口’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련 기록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변화의 종반 단계에 일부 글자들에서 여전히 -m 운미가 잔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는 북방관화의 비음운미 체계에서 -m 운미가 사라졌으나 일부 사람들이 -m 운미로 발음하는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甚麼’와 같이 동화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일부 환경에서 -m 운미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에서 관련 기록들이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당시 -m 운미 소실의 종반 단계에서 -m 운미가 나타나는 상황이 일부 관찰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入聲韻尾의 소실

조선 한학서에서 중국어 입성운의 종성 표기로는 ‘ㅇ(-ʔ), ㅁ(-w)’이 나타난다. 종성 표기 ‘ㅇ, ㅁ’은 좌측음에만 나타나고 우측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표기는 입성운이라는 음운범주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중고 시기의 입성운미인 ‘-p(ㅁ), -t(ㄷ), -k(ㄱ)’가 소실되어 가는 변화의 과도 단계를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 한학서의 중국어음 표기에서 규범음은 음운의 범주와 기원을 명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규범음의 성격을 갖는 좌측음에서 ‘ㅇ, ㅁ’을 종성에 표기하여 입성운의 범주를 표시한 것은 한학서의 표기 원칙에 부합하

는 것이다. 그러나 ‘ㅇ, ㅁ’을 종성에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고유어의 일반적인 표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의 편의를 도모한 우측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조선 한학서의 현실음 표기에서는 ‘ㅇ, ㅁ’을 종성에 표기하지 않았다.

《翻譯老朴》 바로 다음의 간본인 《老諺》, 《朴諺》이 간행된 17세기 후반에는 북방관화 구어에서 입성운미가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ㅇ, ㅁ’ 종성이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16세기 초반에 간행된 《翻譯老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관련 기록과 함께 ‘ㅇ, ㅁ’ 종성이 《翻譯老朴》에 나타나는 양상을 중심으로 입성운미 변화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譯訓》 속음과 《翻譯老朴》 좌측음에 나타난 종성 표기 ‘ㅇ, ㅁ’이 입성운미 소실의 어떤 단계를 반영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용문(4)에 제시한 《通攷》 凡例의 기록과 함께 《通解》 凡例에서는 당시 입성운미의 상황과 두 종성 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9) “入聲<sub>ㄹ</sub> ㄱ ㅁ 三音, 漢俗及韻會蒙韻皆不用之. 唯南音之呼多有用者. 蓋韻學起於江左而入聲亦用終聲, 故從其所呼類聚爲門, 此入聲之所以分從各類也. 古韻亦皆沿襲舊法各收同韻而已. 然今俗所呼穀與骨質與職同音, 而無<sub>ㄹ</sub>之辨也. 故今撰通解亦不加終聲. 通攷於諸韻入聲則皆加影母爲字. 唯藥韻則其呼似乎効韻之音, 故蒙韻加<sub>ㅁ</sub>爲字, 通攷加<sub>ㅁ</sub>爲字. 今亦從通攷加<sub>ㅁ</sub>爲字.” (《通解》 凡例)

(입성 ‘ㄹ·ㄱ·ㅁ’ 세 운미는 중국의 俗間 및 《韻會》, 《蒙韻》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데, 南音에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韻學이 江左에서 일어나 입성 역시 종성을 사용하므로 그 발음하는 바를 따라 몇 부류로 분류하였으니, 이것이 입성이 각 부류로 나뉜 이유이다. 옛 운서에서도 역시 舊法을 따라 각각 같은 운으로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俗間에서는 ‘穀’과 ‘骨’, ‘質’과 ‘職’을 같은 음으로 발음하니, ‘ㄹ’과 ‘ㄱ’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 《通解》를 편찬함에도 종성을 더하지 않는다. 《通攷》는 여러 운의 입성에서 影母(ㅇ)를 더하여 글자를 삼았다. 오직 藥韻은 그 발음이 効韻의 음과 비슷하여 《蒙

韻》에서는 ‘ᄃ’을 더하여 글자를 삼았으며 《通攷》에서는 ‘ᄃ’을 더하여 글자를 삼았다. 이제 또한 《通攷》를 따라 ‘ᄃ’을 더하여 글자를 삼았다.)

위의 기록과 같이 중고중국어에는 입성운미 ‘-p, -t, -k’가 존재했는데, 《譯訓》과 《通攷》의 정음은 이를 반영하여 입성운의 종성 표기가 ‘ᄃ, ㄷ, ㄱ’으로 나타난다. 이 입성운미는 합류하면서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성문폐쇄음 ‘-ʔ’의 상태를 거쳐 음성운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sup>24)</sup> 이 상태가 《譯訓》과 《通攷》의 속음과 《翻譯老朴》의 좌측음에 종성 표기 ‘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인용문 (7)의 翻譯凡例 ᄃᄃ爲終聲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蕭·爻·尤’韻의 ‘ᄃ’ 종성에 대응하는 입성운을 표기하기 위하여 藥韻에서는 全淸音 계열인 ‘ᄃ’ 종성을 표기하였다. 藥韻의 ‘ᄃ’ 종성은 중고의 ‘-k’ 운미가 약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ᄃ’ 종성의 다른 입성 글자와는 달리 ‘ᄃ’ 종성 글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w’ 운미를 가진 음성운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藥韻에 ‘ᄃ’ 종성을 표기한 것은 음성운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종성 표기 ‘ᄃ, ᄃ’은 중고의 입성운미가 합류하면서 소실되어 가는 과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측음에서는 입성운의 종성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 단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중국어음 표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표 6>에서는 《通解》의 금속음과 함께 《翻譯老朴》의 좌우음에 나타난 입성 글자의 표기를 제시하였는데, 《翻譯老朴》의 좌측음(운서적 표기방식)과 우측음(역학서적 표기방식)이 표기방식이

24) 竺家寧, 같은 책, 1994, 219쪽에서는 宋代의 8종 언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성운미 ‘-p, -t, -k’의 구별이 없어져 ‘-ʔ’로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단계가 宋代에 이미 보편적으로 나타났고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張玉來, <元明以來韻書中的入聲問題>, 《中國語文》 第5期, 1991. 이 논문에서는 《中原音韻》(1324) 이후 元和 明初의 운서에서는 입성운이 독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16~17세기 자료 중 《靑郊雜著》(1543), 《西儒耳目資》(1626), 《五方元音》(1624~1672?), 《韻略滙通》(1642)에서는 입성운미가 ‘-ʔ’로 나타나며, 《等韻圖經》(1606)에서는 입성운미가 없다고 하였다.

달라서 음운변화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표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반면, 《通解》의 금속음과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동일한 표기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표기의 차이를 통해 입성운의 종성 표기 ‘ㅇ(-?), ㄹ(-w)’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드러날 수 있다.

〈표 6〉 《通解》 금속음과 《翻譯老朴》 좌우음의 입성 글자 표기<sup>25)</sup>

例字	通解 금속음	翻譯老朴 좌측음	翻譯老朴 우측음	例字	通解 금속음	翻譯老朴 좌측음	翻譯老朴 우측음
菴	붕, 빙			熟	수, 실	·송	:수
肉	실	·송	·수	柚	칠		
軸	질	·풍	·주	妯	질		
粹	썩			朮	충		
抹	망	·뫼	:모	韓	황	·황	:와
襪	와	·왕	:와	血	형	·훙	·휘
各	깁	·갈	·거	閣	깁	·갈	·거
虺	관			惡	엥	·할	:어
鶴	형	·햅	:허	角	깁, 갠	·갈	:교
雀	초	·찰	:초	喫	치	·칭	·치
績	칭			客	깁	·깁	:켜
珀	괩	·괩	:괴	蔔	빙, 붕	·뵩	·부
陌	멍			脉	멍	·뵩	:머
宅	쟁	·쟁	:재	色	생	·싱	:서
索	생	·싱	·새	赫	헝, 형		
額	엥, 영			劃	훙		
役	잉			洫	훙		
入	싱	·송	·슈	榼	깁		
匠	엥			凹	와	·황	·화
業	녕						

25) 신용권, 같은 책, 2019, 211쪽에 본 표가 제시되어 있다. 《通解》 금속음에는 방점이 불명확하게 찍혀 있어서 금속음에 성조 표시는 하지 않았다.

〈표 6〉은 《翻譯老朴》 좌측음에 남아 있는 입성운의 중성 표기 ‘ㅇ’이 《通解》 금속음의 일부 글자에서 사라졌다는 사실과 《通解》의 정음과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 나타나는 藥韻의 중성 표기 ‘빙’이 《通解》 금속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通解》의 정음에서 입성으로 분류된 글자인 ‘熟, 肉, 柚, 軸, 妯, 襪, 颯, (角), 雀, 喫, 凹’ 등의 금속음에서는 ‘ㅇ, 빙’ 중성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는 이들 중 대부분의 글자에서 ‘ㅇ, 빙’ 표기가 나타난다. 《通解》의 금속음에서는 ‘ㅇ, 빙’ 중성이 표기되지 않은 입성 글자에서 ‘熟, 肉, 柚, 軸, 妯’ 등의 중성을 음성운 중성인 ‘ᄃ(-w)’으로 표기하거나 ‘襪 ㅍㅌ, 雀 초, 喫 치, 凹 ㅍㅌ’와 같이 중성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또는 ‘颯 ㅍㅌ’와 같이 모음으로 운미를 표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중 《通解》 금속음에서 중성에 ‘ᄃ’이 표기된 입성 글자들은 모두 屋韻에 속한 중고 -k 운미 글자들로 중성이 ‘ㅣ(i)’로 표기되어 있다.<sup>26)</sup> 이러한 다양한 표기 양상은 ‘-?’ 운미가 완전히 소실되어 가는 과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26) 朱星一, 〈《四聲通解》入聲韻의 今俗音 考察〉, 《中國文學研究》 第37輯, 2008, 393-394쪽에서는 《通解》 屋韻의 금속음에서 《譯訓》 속음에 기록된 성문 폐쇄음 성분 ‘ㅇ’을 탈락시키고 중성에 음성운미 ‘ᄃ’을 표기한 것은 일부 순음 글자를 제외하고 屋韻의 입성운 글자들이 대부분 음성운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27) 李啓文, 〈近代漢語共同語入聲字的演變〉, 《中國語文》 第1期, 1996, 51-54쪽에서는 元代의 《中原音韻》에서 ‘入派三聲’으로 처리하였지만, 元代와 明初 共同語의 구어에 입성과 입성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으며, 중고의 입성운미가 ‘-?’로 합류하는 단계를 거쳐 대략 明代에 이르면 共同語에서 ‘-?’ 운미가 점차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楊耐思, 같은 책, 2012, 34-35쪽에서는 元·明代 이후의 각종 운서들이 입성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첫째, 《中原音韻》, 《中州樂府音韻類編》 등과 같이 入派三聲으로 처리한 경우. 둘째, 《韻略易通》 등과 같이 입성운이 양성운과 배합된 경우. 셋째, 《五方元音》 등과 같이 입성운이 단모음의 음성운과 배합되어 입성이 단모음과 短調의 특성을 보존한 경우. 넷째, 《洪武正韻》 등과 같이 입성운이 별도로 分立된 경우. 각 운서의 자료적 특성이나 반영하는 언어 및 방언의 영향으로 각 운서에서 입성을 처리하는 방식

이와 같이 《通解》 금속음에 나타나는 입성 글자의 표기 중에서 《翻譯老朴》 좌측음에서 종성 ‘ㅇ’으로 표기된 중고 -k 음미의 글자들 중 일부가 음성은 종성인 ‘ㅁ(-w)’으로 표기된다거나 《通解》 정음과 《翻譯老朴》 좌측음에서 ‘ㅁ’으로 나타나는 藥韻의 종성 표기가 《通解》 금속음에서 ‘ㅇ’으로 표기되는 양상은 입성운의 음성운화 과정에서 보이는 표기의 유동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28)</sup>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通解》 금속음에서 ‘ㅇ’ 종성 표기를 가진 입성 글자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16세기 초반의 북방 현실음에서 입성운미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翻譯老朴》의 좌측음과 《通解》의 금속음을 비교하면 입성운미 ‘ㅇ(-ʔ), ㅁ(-w)’이 소실되면서 완전한 음성운에 이르기까지 음운변화의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翻譯老朴》의 우측음에서 보이는 표기 양상이 입성 및 입성운미 소실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7>은 《翻譯老朴》의 좌우음에 나타난 입성 글자의 표기와 翻譯凡例에서의 해당 기록을 제시한 것이다.

<표 7> 《翻譯老朴》의 좌우음에 나타난 입성 글자 표기

성조	例字	《翻譯老朴》 좌측음			《翻譯老朴》 우측음		
		調值 설명	방점	표기	國音 聲調와 비교	방점	표기
입성 <sub>1</sub>	木各	直而高	1	·뭉 ·갈	呼如去聲	1	·무 ·거
입성 <sub>2</sub>	席嚼	先低後厲而促急	1	·씩 ·짚	少似平聲濁音之呼	2	:시 :조

은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성과 입성운미가 소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양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8) 崔在秀, <近代 漢語 入聲에 관한 고찰>, 《中國言語研究》 第21輯, 2005, 326 쪽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通解》 금속음의 입성운미를 ‘ㅇ’으로 표기한 것은 입성이 소실되기 전 단계로서 ‘ㅁ’과 ‘ㅇ’이 통합된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입성이 《譯訓》 편찬 시기보다 더욱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는 방점 1점과 함께 중성 ‘ㄴ, ㄹ’으로 입성 글자를 표기하였고, 우측음에서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성 표기 없이 두 종류의 중국어 입성에 가장 가까운 한국어 성조인 거성(1점)과 상성(2점)의 방점 표기를 입성 글자에 붙였다. 즉 중국어 입성 중에서 성조가 “곧고 높아서(直而高)” 한국어의 거성처럼 발음되는 것은 우측음에서 방점 1점을 붙였고,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거세고 축급하여(先低後厲而促急)” 중국어의 陽平(平聲 濁音)과 다소 비슷한 것은 당시 한국어에서 중국어의 陽平과 가장 유사한 성조인 상성의 방점 2점을 붙인 것이다.

입성 글자의 우측음 표기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첫째, 우측음에서는 입성운미를 나타내는 중성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 입성을 방점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翻譯凡例에서는 우측음에서 2점의 방점이 붙은 글자들에 ‘促急’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측음의 표기 상황은 입성의 소실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성 표기는 없지만 입성운미의 소실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翻譯凡例에서 입성에 평·상·거성과 구분되는 설명이 제시되었고, 우측음에서 두 종류의 방점 표기를 입성 글자에 배정하였다는 사실은 표기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성조로서의 입성이 아직 소실된 상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현대중국방언에서도 입성운미는 소실되었지만 입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예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sup>29)</sup> 또한 우측음에서 두 종류의 방점으로 나누어 표기된 입성 글자들을 분석하면 그 분화에 어느 정도 규칙성도 존재하고 있다.<sup>30)</sup> 특히 우측음에서 2점의 방점이 붙은 경우에 ‘促急’이라는

29) 袁家驊等, 《漢語方言概要(第二版)》, 語文出版社, 2001. 侯精一主編, 《現代漢語方言概論》, 上海教育出版社, 2002. 이 저작들에 따르면 현대의 吳方言, 湘方言, 閩方言 등에 속한 일부 방언들에서는 폐쇄음 입성운미는 소실되었으나 입성이라는 성조는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30) 遠藤光曉, 〈《翻譯老乞大·朴通事》裏의漢語聲調〉, 《語言學論叢》第13輯, 商務印書館, 1984, 170쪽에서는 우측음에서 입성이 분화한 조건으로 韻母音이 高母音인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대체적으로 고모음을 가진 입성 글자는 1점

입성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측음에서도 高母音이 아닌 입성 글자와 같은 환경에서 입성의 축급한 성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더 나아가 우측음에 입성운의 종성 ‘ㅇ, ㅁ’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이 입성운미의 소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 ‘ㅇ, ㅁ’을 종성에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은 고유어의 일반적인 표기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어음을 표기한 國俗撰字之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실제로 입성운미가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우측음에서 표기하기는 어렵다. 15세기 후반에 고유어에서 사용되지 않게 된 各自並書를 우측음에서 全濁音 표기에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황도 이러한 표기방식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sup>32)</sup>

《通攷》 凡例에는 입성과 관련하여 “지금의 속음에서는 비록 종성을 사용하지 않는다(今俗音雖不用終聲)”는 기록과 함께 “평·상·거성에서 소리

이고 비고모음을 가진 입성 글자는 2점인데, 《翻譯老朴》에 출현하는 290개의 입성 글자 중 82%인 237字가 이 분화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 31) 비고모음의 입성 글자가 상대적으로 축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明初의 수도인 南京의 官話가 당시의 北京語와 북방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翻譯老朴》에 나타난 입성 글자 文白異讀의 양상이나 翻譯凡例의 調值 관련 기록은 南京方言의 상황과 유사하다. 劉丹青, 《南京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5, 12쪽에 따르면 南京方言의 입성운미 ‘-?’는 다른 江淮官話나 吳方言의 입성운미 ‘-?’보다 약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특히 ‘ㄴ, i, u, y’ 등 고모음 뒤에서 더욱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翻譯老朴》에 나타난 입성의 상황을 해명하는 데 음운변화의 문제뿐 아니라 明代 북방관화에 대한 南京官話의 영향이나 방언 배경과 같은 당시의 언어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32)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1987, 72-73쪽에서는 15세기 문헌에서 ‘ㄱ, ㅇ, ㄷ, ㄴ, ㅂ, ㅁ, ㅅ, ㄹ’ 등 여덟 종성이 사용된 이외에 ‘ㅈ, ㅊ, ㅍ, ㅌ’와 ‘ㄷ’도 종성에 나타났으며, ‘ㅇ, ㅁ’도 고유어에서 종성에 나타난 경우가 있으나 종성에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았고 “사이시옷” 용법의 극소수 용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의 48-49쪽에서는 各自並書가 《圓覺經諺解》(1465)부터 全廢되고 말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어서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유어에서 된소리를 나타내는 各自並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 늘어지는 정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입성의 상황을 《通攷》의 속음에 기반을 둔 《翻譯老朴》의 좌측음에서는 ‘ㄴ, ㄷ, ㄱ’ 종성이 아닌 ‘ㅇ, ㅁ’ 종성을 써서 나타내었고, 우측음에서는 ‘ㅇ, ㅁ’ 종성마저 쓰지 않고 방점을 통해 舒聲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좌우음의 차이가 당시 입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표기상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翻譯老朴》의 좌우음은 6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성 글자가 우측음에서 개음절로 표기된 양상은 입성운에서 음성운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 진전된 과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sup>33)</sup>

《通攷》와 《通解》의 凡例에서 보았지만 운서나 한학서의 편찬자들은 당시 북방중국어에서 발생한 입성과 입성운미의 변화를 중국어음 표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4)</sup>

33) 安奇燮, 《朝鮮時代 對 漢語 譯音書 序·凡例上의 聲調 認識과 入聲》, 《中國人文科學》 第7輯, 1988, 89-95쪽에서는 조선시대 譯音書에 나타난 입성에 대한 고찰에서 표음방법의 문제보다는 반영된 어음의 시대와 지역 문제에 중점을 두고 《翻譯老朴》 좌우음 및 《通解》 금속음의 입성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채취 대상 지역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通攷》 속음에 기반을 둔 《翻譯老朴》 좌측음은 北音과 南音의 양극단을 제외한 광역적인 남북혼합어음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우측음은 入聲字音이 완전히 開尾韻化한 지역에서 채취한 것으로 그 어음기초를 당시의 北京語 밖에서 찾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또한 《通解》 금속음의 입성 글자에서 ‘ㅇ’ 종성 표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금속음 채취 대상 지역 내에서 ‘-?’ 운미를 보존한 입성이 주류였으며, 이외에 開尾韻으로 표기한 어음의 존재는 《通解》 금속음과 《翻譯老朴》 우측음 채취 지역이 부분적으로 중첩되거나 금속음 채취 지역 내에 우측음 채취 지역의 입성 상황과 가까운 지역 내지는 ‘-?’ 운미 소멸 지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4) 《譯訓》 序에서는 “且有始有終, 以成一字之音, 理之必然, 而獨於入聲, 世俗率不用終聲, 甚無謂也. 蒙古韻與黃公紹韻會, 入聲亦不用終聲, 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라 하여 세속에서 입성에 종성(운미)을 쓰지 않는 언어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리득춘, 《조선어 한자어음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4, 212-213쪽에서는 조선시대의 입성에 대한 이러한 관련 기록들은 평·상·거 3성에 이미 입성이 分入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론적 기술이며, ‘ㅇ’이 입성의 종성으로 표기된 사실은 입성 완전 소실 전의 역사적 한 단계를 사색하게 하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崔世珍은 《翻譯老朴》에서는 좌우음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성을 표시했고, 《通解》에서는 韻 표시의 입성 글자에 입성운미 표기 ‘ㄴ, ㄷ, ㄱ’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정음에는 藥韻을 제외하고 입성운의 종성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18세기 간행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편찬자들은 좌측음에 《譯訓》의 정음을 표기하면서도 입성운의 종성은 ‘ㄴ, ㄷ, ㄱ’이 아닌 ‘ㅇ, ㅁ’을 표기하였다. 입성 글자를 표기하는 편찬자들의 이러한 모습도 조선 한학서의 편찬 시기에 입성과 입성운미의 변화가 소실의 중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翻譯老朴》의 좌우음에 나타난 입성 글자의 표기 양상은 입성 및 입성운미 소실의 과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완전한 소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7세기 후반의 《老諺》, 《朴諺》은 방점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입성 글자 표기가 《翻譯老朴》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좌측음의 ‘ㅇ, ㅁ’ 표기는 형식적으로 입성운의 범주를 나타낼 뿐이고, 간행 시기를 감안할 때 당시 입성 및 입성운미가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후의 한학서 간본도 마찬가지이다.

#### IV. 결론

중국어 운미 변화의 문제는 중국어음운사의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들에서 논의가 행해져 왔다. 조선 한학서는 표음문자를 사용한 자료이므로 중국어 운미 변화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여러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sup>35)</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각 운미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이 주를 이루고, 훈민정음 종성 표기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조선시대

35) 조선시대의 자료에 나타난 중국어음 종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목록은 遠藤光曉等編, 《譯學書文獻目錄》, 박문사, 2009, 69-76쪽에서 찾을 수 있다.

의 한학서에 제시된 중국어음의 중성 표기가 당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중국어의 운미를 나타낸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중성 표기의 성격에 근거하여 이 표기에 반영된 근대중국어의 운미 변화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중성 표기가 당시 중국어의 운미를 실제로 나타낸 것인가의 문제는 이 표기를 운미 변화 연구에 이용하기 위하여 먼저 해명할 필요가 있다. 支紙眞韻 齒音字의 중성 표기 ‘△’은 새로 출현한 설첨운모(ɿ, ʮ)를 정밀하게 표기한 것으로 운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좌측음에 표기된 중성 ‘ㄱ’은 -m 운미의 -n 운미화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譯訓》 속음에 기반을 두었거나 《譯訓》 정음을 회고적으로 표기한 것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m 운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怎麼’와 ‘甚麼’에서 우측음에 ‘ㄱ’ 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정 환경에서 산발적으로 출현한다는 점에서 18세기까지 북방관화에 -m 운미가 잔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입성운의 중성 표기 ‘ㅇ, ㅁ’은 입성운미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입성 소실의 문제와 표기방식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그 표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음성운의 중성 표기 중 좌측음에 나타난 중성 ‘ㅁ(-w)’은 운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음에서 중성에 표기된 ‘ㄱ(-o), ㅌ(-u)’와 대응하는 것은 표기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각 한학서의 좌측음에서 보이는 중성 표기의 차이는 核母에서 발생한 低母音化(/e/ → /a/)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支紙眞韻 齒音字의 중성 표기인 ‘△’은 설첨모음(ɿ, ʮ)의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초기 한학서에 나타난 해당 운모의 중성 표기 변화는 권설음화의 진전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양성운의 중성 표기는 ‘-m’ 운미가 소실되고 ‘-n, -ŋ’으로 비음 운미 체계가 간략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변화의 시기와 양상에서 비교적 생생하게 당시 북방의 共同語에 반영된 -m과 -n 운미의 합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자료에 나타난 일부 기록은 -m 운미 소실의 중반 단계에서 -m 운미가 일부 출현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넷째, 관련 기록과 함께 《翻譯老朴》 좌우음, 《通解》 금속음 등에서의 입성 글자 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학서의 좌측음에 표기된 종성 ‘ㅇ(-?), 봉(-w)’이 입성운미가 소실되어 가는 과도 단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측음에서 입성 글자가 개음절로 표기된 것은 입성운에서 음성운으로 변화하는 과도 단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표기의 성격과 翻譯凡例의 기록을 고려할 때 입성 및 입성운미의 완전한 소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고는 조선 한학서에 반영된 운미 변화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중국의 운서 및 자료와의 충분한 비교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아쉽으나, 중국어 각 운미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 부분에서 각주를 통하여 중국의 운서에 반영된 운미 변화에 대한 기존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sup>36)</sup> 중국어 운미 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 한학서와 중국의 자료에 나타난 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비교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 한학서에 나타난 종성 표기를 중국어 운미 변화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표기의 성격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종성 표기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근거하여 관련 기록과 표기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이 표기들을 근대중국어에서 발생한 운미의 변화 양상을 해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姜信沆, 〈「朴通事新釋譯解」內 字音의 音系〉,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제17집, 1978.

金武林, 《洪武正韻譯訓 研究》, 도서출판 월인, 1999.

金完鎭, 〈重刊老乞大譯解의 研究〉, 《韓國文化》 제13집, 1992.

36) 각주 20), 23), 24), 27)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 리득춘, 《조선어 한자어음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1994.
- 신용권, 《『老乞大』와 『朴通事』 언해서의 중국어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安奇燮, 〈朝鮮時代 對 漢語 譯音書 序·凡例上의 聲調 認識과 入聲 - /-k// -t// -p/韻尾 脫落 後의 變遷 탐구를 위하여-〉, 《中國人文科學》 第7輯, 1988.
- 遠藤光曉等編, 《譯學書文獻目錄》, 박문사, 2009.
- 李基文,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1987.
- 朱星一, 〈《四聲通解》 入聲韻의 今俗音 考察〉, 《中國文學研究》 第37輯, 2008.
- 崔在秀, 〈近代 漢語 入聲에 관한 고찰 -朝鮮時代 譯音書를 中心으로-〉, 《中國言語研究》 第21輯, 2005.
- 허용,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1985.
- 安奇燮, 〈從朝漢對音考察-m韻尾의轉化〉, 《語言研究》 第2期, 1995.
- 侯精一主編, 《現代漢語方言概論》, 上海教育出版社, 2002.
- 李啓文, 〈近代漢語共同語入聲字的演變〉, 《中國語文》 第1期, 1996.
-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
- 劉丹青, 《南京方言詞典》, 江蘇教育出版社, 1995.
-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第31期, 1946.
-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80.
- 王力, 〈漢語語音史上的條件音變〉, 《語言研究》 第1期, 1983.
- 楊耐思, 《近代漢語音論(增補本)》, 商務印書館, 2012.
- 袁家驊等, 《漢語方言概要(第二版)》, 語文出版社, 2001.
- 遠藤光曉, 〈《飜譯老乞大·朴通事》裏의漢語聲調〉, 《語言學論叢》 第13輯, 商務印書館, 1984.
- 張玉來, 〈元明以來韻書中的入聲問題〉, 《中國語文》 第5期, 1991.
-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灣學生書局, 1994.

- 《洪武正韻譯訓》(1455), 高麗大學校出版部 영인본, 1974.  
 《翻譯老乞大》(1515년경), 卷上下 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0.  
 《翻譯朴通事》(1515년경), 卷上 慶北大學校大學院 영인본, 1959.  
 《四聲通解》(1517), 大提閣 영인본, 1985.  
 《老乞大諺解》(1670),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3.  
 《朴通事諺解》(1677),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4.  
 《譯語類解》(1690),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5.  
 《伍倫全備諺解》(1721),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5.  
 《老乞大諺解》(平安監營重刊本)(1745序), 서울大學校奎章閣 소장본.  
 《老乞大新釋諺解》(1763), 卷一, 컬럼비아대학 동아도서관 소장본.  
 《朴通事新釋諺解》(1765), 서울大學校奎章閣 영인본, 2004.  
 《重刊老乞大諺解》(1795년경), 서울大學校奎章閣 소장본.  
 《華音啓蒙諺解》(1883년경), 서울大學校奎章閣 소장본.  
 《華語類抄》(1883년경), 서울大學校奎章閣 소장본.

### <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study Chinese ending change reflected in Chinese textbooks of Joseon dynasty. In these books Chinese readings in Korean alphabet may reflect the phonetic changes in Mandarin. This paper will analyze these readings in Joseon Chinese textbooks and discuss several problems concerning Chinese ending chang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could be made as following: First, -z(△) and -m(□) readings don't represent the actual Chinese ending of Modern Chinese at that time. -ʔ(ㄷ) and -w(ㄹ) readings may represent Chinese ending category. Secondly, the -z(△) readings in final position may reflect the main vowel change of Zhi-zhi-chi-yun(支紙寘韻).

Thirdly, in some cases the -m(ㅁ) readings in final position is retained, but -m ending and -n ending were actually merged. Finally, -ʔ(ㅇ) and -w(ㄹ) readings in Joseon Chinese textbooks not only may represent Chinese entering sound change, but also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readings in Joseon Chinese textbooks.

Key Words : 중국어 韻尾(Chinese ending), 음 변화(phonetic change), 중국어음 표기(Chinese readings), 朝鮮 漢學書(Joseon Chinese textbooks), 근대 중국어(Modern Chinese)

